

250611 수요일_살전4_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찬송가1: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가2: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본문: 살전4:9-12

결찬: 220장 사랑하는 주님앞에

▣서론

1. 하나님의 다스림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의 변화된 삶입니다. 이전의 생각과 삶의 양식들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따르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1-8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도시문화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성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전해주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문화는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고, 자신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사회까지 파괴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들의 삶의 실재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지역문화의 영향을 따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권면하였습니다.

▣본론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형제사랑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다른데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간의 형제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가족간의 사랑을 말하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오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간의 우애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실수로 인해 위기를 마주할수도 있는데 이때에 이웃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끝까지 서로 돌보고 책임져주는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형제자매간에 갈등과 다툼이 아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형제애를 바랄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가족공동체인 교회안에서 형제와 자매간에 관계속에 서로 사랑함이 깊어지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속에서 맺어지는 이익과 결부된 조건적인 관계가 아닌, 가족으로서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맺어지는 관계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독교 공동체안에서의 다름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도시문화속에서 이 다름이, 구별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판단과 비교와 정죄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책임지는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기독교 공동체의 구별됨을 세상속에서 드러내는 외적표징이 될 것입니다.

아... 저들의 삶의 양식은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서로를 그렇게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을까? 서로의 삶의 배경과 사회적 직위와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양성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리고 드러내는 방식은 다른데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노예와 자유민과 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사회계층과 민족들에게 열려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사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벧전1: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사도도 더 적극적으로 말하였습니다.

4: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거듭난 성도의 열매로서 드러나야 하는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한국교회안에서의 가족공동체성과 형제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도시문화속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시대정신에 영향을 받으며 점점 악화되고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공동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랜시

간동안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서로의 아픔과 삶의 실재를 깊이 알지 못하고 걱정 관계선안에서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형제사랑이 결여된 공동체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2.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사랑

그러나, 바울이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써서 가르치지 않아도 될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내용이 없을만큼이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넘치는 형제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형제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①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형제를 사랑하다

9절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9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9절에 하반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따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도시문화속에서 세상속에서 맺어지는 관계보다 더 깊이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다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다른데에 있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1: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 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습성들이 가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가르침인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상기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아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배우고 체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인줄 믿습니다. 공동체안의 또 다른 성도를 바라볼때에 때로는 나의 가족이 아닌 것 같아 무관심과 외면으로 반응하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와 판단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볼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받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무관심과 외면이 아닌, 비교와 판단과 정죄의 시선이 아닌 한결옴더 다가가 형제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데살로니가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여러분, 편지에 쓸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여러분의 형제사랑이 더욱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이들이 본보인 형제사랑의 모습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5-6년뒤에 바울이 고린도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고후 8: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후 8:2 환난의 많은 시련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당시에 바울의 전도여행의 한가지 목표는 환난과 기근속에 있는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가 함께하기로 작정했는데 안하고 있는 상황인것이죠. 이때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본이 되고 있는지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의 형제애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풍요롭게 했고, 넘치고 흘러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해 기근으로 인해 삶의 위기를 맞이한 예루살렘교회의 형제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② 물질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다

지역 경계선을 넘어 예루살렘 교회에 까지 닿고 있는 이들의 형제애의 방식은 물질을 통해 실천되는 형제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고후8:5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자신을 먼저 드리고, 형제사랑이 자신들의 물질을 나눠주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주인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도시문화속 물질을 대하는 방식]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마주하는 돈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능해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돈을 삶의 주인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이 가진 능력이 큰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돈의 소유가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메시지로 가득한 도시문화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보다,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나눔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신명기 15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가운데 건져낸 자신의 백성들에게 같은 공동체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지나치지 말고, 나눠줄 것을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신명기 15:7-8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노예가운데 있다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공동체원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난한자에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나누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공동체원중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의 나눔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11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돈을 흘려보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할수있는 유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은 도구이고, 너희의 행복과 생존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 한분뿐이다!! 이것을 미리 법으로 제정해서 훈련 시키신거죠.

[실패하는 이스라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속에서 돈이 최고야라고 말하며 더 많은 돈을 소유해야 너가 행복하고, 너가 잘 살수 있어!! 돈을 위해 살아라고 말하는 자본주의라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이 섬기는 돈에게 배신당하죠. 철저히 노예가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교회안에서 이 모습이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경제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말이죠. 공동체안에 가난한 사람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안의 가난한자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통해 가난한자의 궁핍함을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 방식에 자신을 드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돈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시대 상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삼는 고백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구별된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공동체 안과 밖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공동체안의 구성원들을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 물질을 흘려보내는 방식을 보면서 말이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럴 수 가 있는가!!

당시 구제헌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은 무엇이기예, 돈을 형제를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돈을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변화는, 하나님을 주인삼고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맞다는 비용계산이 끝나기전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방식에 자신을 드리며 맛보고 훈련해나가지 않는 이상, 돈은 내것이며, 내가 원하는대로 사용해야된다는 방식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돈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상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방식은 형제사랑의 실천적 도구로 나뉘지는 방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③ 자신의 경제생활을 바로세우는 것 또한 형제사랑

마지막 세 번째 형제 사랑의 모습은 공동체안에서 형제 사랑을 왜곡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권면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쓸것이 없을 정도로 물질이 공동체 안과 밖으로 나뉘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불균형 또한 바울은 권면하며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이 부분에 힘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안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나면요.

5:14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이, 열에서 이탈한 상태, 무질서함을 말하는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나눔받는 자들중에 무질서함과 규모없는 사람들이 나타난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얼마나 많이 흘러갔길래, 공동체 나눔에 의존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며 살아가려는 자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에 의존하며 일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오늘날 일자리가 없어서, 질병과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들은 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을 안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속에, 살전 4:11절부터 권면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여러분,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경제생활을 위해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은 가난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참여하는 도구입니다. 돈을 통해 공동체안의 형제자매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망합시다!! 그러니 더더욱 힘쓰시다.

공동체의 나눔에 의존하며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바울이 권면하는 경제생활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자신의 경제생활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돈에 대해서, 먼저 자신의 경제생활을 바로 세우는 방향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형제사랑을 위한 또 다른 경제생활의 측면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나누는 방식으로서의 형제사랑에 대한 칭찬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측면, 공동체의 나눔에 의존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회복되어, 자신의 경제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것도 형제사랑이라는 것이죠.

권면한다라는 주동사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A.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한 형제사랑)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교회안에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로 인해 어차피 주님이 곧 오실거니까 아무일도 하지 말자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열광주의자들과 자신의 경제적인 삶은 책임지지 못하면서 타인의 경제생활에 끊임없이 참견하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건데, 내가 오늘 왜 힘들게 일해야 되나, 이런 잘못된 종말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과 공동체의 도움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려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992년 다미선교회에서 주장한 시한부 종말론을 받아들인 수많은 직장인들이 재산을 바치고 일터를 그만두었습니다. 학업을 그만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받아들인 열광주의자들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B.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한 하나님의 경영참여)

두 번째 권면은 자기 손으로 일하라는 권면이었어요. 이들중에는 육체노동을 노예들에게만 맞는

일이라 하며, 육체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도 있었어요. 직접 노동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죠. 성경에서의 노동의 의미는 1차원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넘어서죠.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경영에 참여하는 의미로서의 노동이죠. 우리는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속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구별된 방식으로 노동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내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경제 생활, 올바른 노동의 의미를 먼저 바르게 세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더욱힘쓰며 열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 말씀처럼, 경제생활에 대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데살로니가지역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줍니다. 공동체안의 또 다른 어려운 자들을 향해 물질을 흘려보내는 형제사랑을 실천함과 동시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자립하는 형제사랑의 방식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힘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마게도냐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의 방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방식을 따라 먼저 본보였던 자들의 사랑의 부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기브앤티이크라고 하죠. 받은만큼만 주는 계산적인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방식이 저의 돈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계산적인 습관과 자기중심적인 물질의 소비방식은 하나님의 다스림아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를 맞이해왔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예수님이 사랑한 방식이 저를 움직여왔고, 공동체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아래 살아가는 선배들과 동료들이 저와 저의 가정에게 흘려보내준 물질적 사랑의 표현을 통해 변화를 맞이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라고 말하며 부담을 느끼기도 했고, 호기심과 의구심을 일으키는 과정도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제는 공동체 안과 밖으로 흘려보내려 애쓰는 작은 몸부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물질을 흘려보낼때에 돈이 저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심을 경험하는 약속의 성취도 경험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사랑한것같은 사랑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며, 우리 모두는 또 다른 누군가의 형제사랑을 통해 인생의 위기적 상황속에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형제사랑은 공동체안의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돕는데에 흘려보내는 물질과 시간의 내어줌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공동체의 나눔에 의존하지 않을만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자기 손으로 노동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7890-

이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서울홍성교회 사랑방 공동체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는 지금 어떤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가?

서울홍성교회는 오랜시간동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공동체안과 밖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실천적 삶을 살아내고 본보여온 교회입니다. 시작의 과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먼저 걸어난 이들의 헌신적 사랑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라는 실천적 방향을 정하고 교회의 재정사용비율을 정하기도 했으며, 공동체안에서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경계선을 넘어 지역사회의 교육적 필요를 위해 장학금을 마련하기도 했고, 소외된 이들의 생존과 위해 경제적 필요와 정서적 필요를 돕는 사랑의 수고를 결단하고 실천해왔던 교회입니다.

심방하며 많은 성도님들의 실제적 고백을 듣습니다.

억울한 사고로 인한 오랜 법적 절차들속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서울홍성교회의 성도님들의 물질적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경험해왔는지...정신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속에 어떤 돌봄과 사랑을 받아왔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온 서울홍성교회의 사랑의 수고는 공동체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경계선을 넘어 마게도냐 교회들과 아가야지역의 고린도교회와 머나먼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같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0주년을 바라보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 지역가운데 존속시키기 위한 교회 예배당을 보수하는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방 제자공동체!!

서울 홍성교회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칭찬과 격려를 받는 형제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사랑함이 우리 공동체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서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서로 사랑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되는 서로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